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36호

사우디 국부펀드, ATP·WTA 등 테니스대회 개최 추진

'스포츠산업 큰손' 사우디, 이번엔 테니스에 눈독

박종화 이데일리기자

신석민(경남대학교체육교육과 교수)

스포츠 인권을 말하다

경남신문

제주연구원, 안전한 스포츠환경 조성 방안 연구 결과 발표

제주 체육계, 인권침해 알려도 돌아온 건 '침묵'과 '2차 피해'였다

고원상 미디어제주기자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요청 229건 중 6건은 징계 안 이뤄져

피해자대응 고비위행위자남는체육계·비위행위자관련처벌규정 개정 강화필요성제기

유창현 경기신문기자

“선수도 동의한 입맞춤” 주장한 스페인 축구협회장 결국 물러나

‘강제 키스’ 발뻠하던 남자의 최후... “모든 직 사퇴할 것”

이효석 매일경제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스포츠산업 큰손' 사우디, 이번엔 테니스에 눈독

뉴욕타임스(NYT)는 PIF가 다음 투자 대상으로 테니스를 선택할지가 투자업계에서 화제가 됐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굵직한 테니스 대회를 잇달아 유치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프로테니스(ATP)는 21세 유망주가 참여하는 대회인 ATP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개최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불발되기는 했지만 올해 여자프로테니스(WTA) 파이널스 개최권을 두고서도 막판까지 멕시코 칸쿤과 각축을 벌였다.

최근 몇 년 새 PIF는 스포츠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석유 일변도 경제구조를 관광·서비스산업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해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PIF가 지난 2년간 스포츠에 투자한 돈이 최소 63억달러(약 8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사우디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자국 리그 알 나스르에 영입하는 데만 시즌당 2억유로(약 2900억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니스계에선 사우디 오일머니가 들어오면 축구·농구 등에 비해 밀리는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자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는 “테니스는 사업적 성장성이 가장 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치가 가장 많은 종목”이라며 테니스계가 PIF 등 국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서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NYT에 말했다. 미국 테니스 선수 제시카 페굴라는 “남녀 상금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사우디의 WTA 파이널 유치)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도 많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반면 사우디 자금이 테니스가 잠식되는 걸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우디가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데 테니스가 악용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특히 1970~1980년대 여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했던 크리스 에버트는 사우디의 여성 인권 억압 문제를 지적하며 “WTA는 평등에 관한 문제다”고 자신의 SNS 계정에 썼다.

[기고] 스포츠 인권을 말한다- 신석민(경남대학교체육교육과 교수)



오늘날 인권은 사회를 통념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이는 인권에 반하는 현상들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체육계에서도 그러하다. 지난 6월 26일은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 선수였던 고(故) 최숙현이 당시 22세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지 3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그가 자살 직전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는 아직도 큰 충격과 분노로 남아 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물론 수사기관 등 여러 기관에 하소연하고 바로잡아주길 원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다는 점도 경악할 만했다.

그동안 체육계에서는 과정과 노력은 도외시하고 승리와 메달만을 최우선적 가치로 생각해 왔다. 구타와 폭력 등 반인권적 처사들이 기록과 승리라는 미명 아래 용납된 것도 부끄러운 사실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체육계는 1등만 살아남는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체육 꿈나무들은 오직 ‘메달 사냥꾼’으로 길들여 왔다. 그들의 꿈에는 체육행정가, 체육교육자 등이 들어갈 틈이 없다. 오직 국가대표가 되고, 1등으로 시상대에 오르는 것 외에 다른 꿈이 있을 수 없다. 그러하기에 구타 및 폭력, 학습권 박탈 등은 그들을 메달 사냥꾼을 만드는 훌륭한 시스템(?)으로 여겨졌다. 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인 상처와 트라우마는 패자(敗者)의 변명으로만 치부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인권은 찾을 수 없는 ‘짐승들의 사냥터’가 되고 만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관행으로 간과(看過)해서는 안 된다. 변화해야 한다. 승자독식의 체육에서 탈피해야 한다. 약육강식의 사냥터에서 승자와 패자가 어울리는 공존의 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체육계의 구조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 체육 지도자의 처우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체육지도자들의 처우를 합당하게 개선하고,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지도자들부터 승리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보편적 복지가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이 따로국밥(?)이 아닌 상호 보완하며 발전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체육계가 차별과 불평등을 위해 나눈 계층이 아니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올해부터 스포츠 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제 기존의 잘못된 시스템을 버리고 올바른 시스템으로 갈아타야 할 시점이다. 메달 사냥꾼들이 설치하는 사냥터가 아니라 몸과 정신이 생동하는 체육계로 변해야 할 때다. 한 사람의 체육인으로서 소망한다. 체육계에서는 더 이상 인권 유린이라는 낯 뜨거운 뉴스들이 보이지 않는 날이 오기를...

신석민(경남대학교체육교육과 교수)

자료 출처: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413493>

제주 체육계, 인권침해 알려도 돌아온 건 '침묵'과 '2차 피해'였다

제주도 체육계에 여전히 폭력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인권침해의 가해자는 대부분 감독이나 코치, 선배 선수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을 하더라도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침묵'을 선택하는 이유는 '알려도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피해 상황을 알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7일 체육인 인권침해 근절을 통한 안전한 스포츠환경 조성 방안을 단계별·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안전한 스포츠환경 조성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는 도내 체육인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16일간 166명을 대상으로 스포츠계 인권 인식 및 인권침해 실태, 소속 체육단체와 팀의 청렴성 문제 등을 조사한 결과가 실리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체육인들 중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은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해서 대부분 경험이나 목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을 보였다. 다만 일부 응답자들은 선수 생활 중 불공정한 경험 등을 했다거나 금품요구 등의 물질적 요구, 언어 및 신체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을 내놨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 중에서는 선수생활 중 불공정한 경험 했거나 목격했다는 이들이 응답자의 15.7%를 보였고, 금품요구 등의 물질적 요구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이들이 7.8%였다. 언어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이들은 15.7%, 신체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이들은 11%다. 성적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이들도 6.3%나 나왔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의 가해자는 감독과 코치진이 전체 가해자의 절반을 넘었다. 가해자에 대한 응답을 보면 감독이 35.3%, 선배선수가 29.4% 코치가 23.5%로 나왔다. 감독과 코치, 선배선수가 전체 가해자의 88.2% 수준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의 대응은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의 46.2%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주변 동료나 지도자에게만 알린다'는 응답도 46.2%였다. 인권침해 사례의 대부분이 외부로는 알려지지 않는 구조인 것이다.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유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다들 가만히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50%가 이 이유를 꼽았다. 그 외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도 응답자의 30%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인권침해 사실을 알렸을 때 오히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자의 신원 등이 주변에 알려졌다는 응답도 상당했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25% 수준이었고, '피해자의 신원이 주변에 알려졌다'는 응답도 18.7%에 달했다.

'주변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다'는 응답도 12.5%에 달해 제주도내 체육계에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상당한 수준임을 보였다.

이외에 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는 인권침해 사례 중 불공정한 경험을 한 바 있다는 응답이 28.6%에 달했고, 전문체육지도자 등에서는 불공정한 경험을 했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38.2% 수준이었다. 혈연·학연·지연 등 조직 사유화와 언어폭력, 부당한 지시나 징계, 회식이나 접대 등의 참석 강요, 과도한 음주 강요 등도 있었다.

아울러 제주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들은 언어폭력을 경험바 있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37.5%에 달해 제주도내 체육회에 언어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보였다.

제주연구원은 이와 같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권침해 피해자 조기 발견 및 사전 예방체계 강화 ▲상시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인권침해 발생 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및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및 무료소송 지원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 및 능동적인 홍보 추진 등의 안전한 스포츠환경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스포츠윤리센터
KOREA SPORT ETHICS CENTER

피해자 떠나고 비위행위자 남는 체육계... 비위 행위자 관련 처벌 규정 개정 강화 필요성 제기

횡령액이 1600만 원대로 밝혀진 성남 모 종목단체 임원 A 씨가 성남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데 이어 자격정지 기간 중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모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논란이 일면서 체육계 비위 척결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체육회는 수년간 성남 모 종목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금품수수와 횡령·배임 등으로 1600여만원을 횡령한 A 씨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횡령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자격정지 5~10년이나 제명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A 씨가 성남체육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봐주기식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분노는 해소되기는커녕 쌓여만 갔다. 당시 피해 학생선수들 대다수는 이 사건 이후 체육계를 떠났다. 그러나 A 씨는 여전히 체육계에 몸담고 있다. 더욱이 자격정지 중인 A 씨는 올해 8월 1일자로 도장애인체육회 모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해당 종목단체는 의무 조항인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도장애인체육회는 A 씨의 채용에 관여할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면서 뒷짐 지고 있다.

다만 도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주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에 바뀐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절차를 안내하면서 지도자, 심판, 임직원 등 계약을 앞둔 스포츠인들이 의무적으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는 계획이다.

성남지역 체육계 한 관계자는 “A 씨를 고발했던 학생선수들 대다수는 이 사건 이후 운동을 그만 뒀다”면서 “A씨가 고작 자격정지 1년을 받은 것도 불만인데, 계속 체육계에 남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허탈하다.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도 허망하다”고 토로했다. A 씨의 비위행위로 인해 성남시체육회, 경기도육상연맹,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에서 많은 행정력과 시간이 소비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8월 4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총 229건의 징계요청을 징계 이행기관에 전달했다. 이 중 징계 이행 기관이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통해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는 5건이며 징계 예정자의 퇴사로 인한 징계 조치 없음은 1건으로 나타났다. 징계가 이행되더라도 A 씨의 사례처럼 가벼운 징계에 그친 사례들도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체육계 비위척결을 위해서는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보다 규정을 더욱 세심하게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상현 한신대 특수체육학과 교수는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이 무의미하다”면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게 수사권과 징계권을 주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 권한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집행기관이 아닌 스포츠윤리센터에게 수사권과 징계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김도균 경희대 체육대학원 교수(대한체육학회 회장)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 4대약 근절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큰 권한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스포츠가 많이 선진화 됐다. 스포츠 비리행위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리행위자에 대한 정확한 징계는 중요하다. 다만 비위행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 선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이를 조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의 사건은 2022년 11월 23일 경찰에 접수됐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A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했고 혐의가 인정돼 지난 6월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 키스’ 발뺌하던 남자의 최후... “모든 직 사퇴할 것”

지난달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시상식에서 선수에게 진한 키스를 퍼부어 물의를 일으킨 루이스 루비알레스 스페인 축구협회장이 결국 물러난다.

루비알레스 회장은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직서를 현재 스페인 축구협회 회장대행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럽축구연맹(UEFA) 부회장 자리에서도 물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알레스 회장은 지난달 여자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우승한 후 시상대에 오른 선수 헤니페르 에르모소를 끌어안고 입맞춤했다. 상당히 과격한 느낌을 주는 이 돌발 키스 장면은 SNS를 타고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져나갔고 스페인 마초문화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대됐다.

루비알레스 회장은 ‘에르모소의 동의를 얻은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에르모소는 이를 부인했다. 결국 루비알레스 회장은 FIFA로부터 90일 직무 정지 징계를 받았고, 스페인 검찰은 성범죄 여부를 두고 예비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루비알레스 회장은 ‘키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전 세계 스포츠계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지만 ‘버티기’로 일관하다 이날 처음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사퇴 거부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스페인 축구협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스페인이 포르투갈, 모로코,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2030년 FIFA 월드컵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 그의 사퇴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루비알레스 회장은 “진실이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키스가 에르모소의 동의를 얻은 행위였다는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이 스페인 ‘마초 문화’를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루비알레스 회장의 사임 소식을 전하며 “스페인 스포츠계에서 이 같은 마초 문화는 고질적 문제였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최근 경질된 호르헤 빌다 스페인 여자 대표팀 감독은 이전부터 강압적 지도 방식으로 선수들 반발을 샀다. 또 선수들은 3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 대회에 참가하는 동안 자정 전까지는 호텔 객실 문을 잠글 수 없었다고 한다.

스페인 축구 저널리스트 기엠 발라게는 스페인 언론과 사회가 그간 이런 사안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스페인) 이제야 (스포츠계에) 여성을 부차적 존재로 취급하는 조직적 분위기가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발라게는 “월드컵이 (변화의) 촉매제가 될 거라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촉발된 일들이 놀랍다고 평가했다.

올란타 디아스 부총리 겸 노동부 장관은 스포츠계에 만연했던 남성 우월주의가 루비알레스의 행위를 통해 최악의 형태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스페인 여성들은 지난달 말 마드리드 시내에서 가두시위에 나서 여성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발라게는 “중장기적으로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정치적 쓰나미였다”고 평가했다.

스페인 여자 축구 리그 기획·전략 담당 페드로 말라비아는 “이는 우리가 원하는 축구는 어떤 축구인지, 누가 회장을 선출하는지, 스포츠에서 여성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라면서 “적절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대한가라테연맹 '또바기체육돌봄 가라테교실' 실시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922>

'3600억원제사에도 실라영입 실패' 역대급 사우디 이적시장 마감, 메사옴베페 실라 안왔지만, 네이마르 벤제마 킹테 왔다

<https://sports.chosun.com/football/2023-09-08/202309080100060660007433?t=n1>

여자씨름 선수들이 일으키는 '모래바람'이 불어온다

<https://www.ildaro.com/9716>

국내 최초 현역 수영선수 교수 임다연,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수 임용

https://news.monsterzym.com/index.php?mid=sports_asia&type=main&document_srl=10427601

'유도·탁구·승마' 한국마사회 선수단, 청림 다짐 릴레이

<http://www.osen.co.kr/article/G1112178731>

경산교육지원청, 경북 남부권 중학교 스포츠강사 역량 강화 직무연수 실시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538>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2023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소양교육 개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4406635739464&mediaCodeNo=258>

삼육대, '2023 장애인스포츠 심판 아카데미' 운영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249>

교사·학생 함께 뛰는 축구대회... '골때녀'와 이벤트 경기도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08_0002443882&cID=10201&pID=10200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